

2022 공연예술 해외진출 기반마련
KAMS Connection

넥스트모빌리티 리서치2 결과자료집

**넥스트모빌리티
리서치2
결과자료집**

NEXT MOBILITY
RESEARCH2
BOOK


NEXT
MOBILITY



목차

- 6 **INTRO.**
새로운 국제이동성과 유통 :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서 무엇이 함께
이동되어야 하는가?
- 최석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
- 14 **Research 1.**
재난의 시대, 연대의 관점으로 보는 넥스트 모빌리티 - 피켓라인 :
아시아가사돌봄노동협회
- 제너럴쿤스트
- 20 **Research 2.**
소셜 코레오그래피와 9개의 노래들 by 탠저린콜렉티브
- 탠저린 콜렉티브
- 26 **Research 3.**
JUDGE ME : 예술의 가치
- 왕징이, 푸린, 이희진

CONTENTS

- 32 **INTRO.**
New International Mobility and Circulation : From How to Move? to What Needs
to Move Together with the How?
- Kyu Choi
- 40 **Research 1.**
In the Age of Disaster, Next Mobility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Solidarity
[Picketline : Asia Housekeeping and Care Work Association
- Generalkunst
- 48 **Research 2.**
Social Choreography and Nine Songs by Tangerine Collective
- Tangerine Collective
- 56 **Research 3.**
JUDGE ME : Value of Art
- Jingyi Wang, Lynn Fu, Heejin Lee
- 

NEXT MOBILITY

INTRO

새로운 국제이동성과 유통: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서
무엇이 함께 이동되어야 하는가?

최석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

새로운 국제이동성과 유통: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서 무엇이 함께 이동되어야 하는가?

최석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

넥스트 모빌리티^{Next Mobility}는 2021년을 시작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국제이동성과 유통에 대한 리서치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의 공연예술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KAMS Connection}, 서울아트마켓^{PAMS},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가 공동 기획하고 있다. 이 리서치 프로젝트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예술, 예술가, 예술작품의 새로운 국제 이동성/유통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질문의 첫번째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국제이동성·투어링·유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새로운 형식은 무엇인가? 둘째,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응하여 환경을 고려한 국제 이동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환하고 있는 디지털 모빌리티^{Mobility}는 무엇인가이다.

2022년 넥스트 모빌리티에서는 공연예술 해외진출 기반마련 사업(이하 커넥션) 리서치에 제너럴 쿤스트의 이해령, 임현진, 이혜미, 탠저린 콜렉티브의 장혜진, 김재리, 임지에 그리고 JUDGE ME 작품을 중심으로 왕징이, 푸린, 이희진이 참가 하였다. 또한 서울아트마켓의 팸스 피칭^{PAMS Pitching}을 통해 넥스트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가진 예술가들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는 리미니 프로토콜의 <부재자들의 회의(Conference of the Absent)>는 '아무도 이동하지 않고 국제회의 만들기'라는 넥스트 모빌리티의 관점의 작품 소개와 스테판 카에기(Stefan Kaegi)의 마스터 클래스(워크숍)를 열고 '다른 형식의 예술의 국제이동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 글에서는 2022년 커넥션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리서치 질문과 내용 및 결과 그리고 향후 넥스트 모빌리티의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피켓라인-아시아 가사 돌봄 노동협회> : 제너럴 쿤스트(Generalkunst)

'제너럴쿤스트'의 <피켓라인>의 리서치는 예술 작품의 국제적 창작과 유통이 단절된 곳들을 서로 연결하고 예술 작품이 이러한 국제적 연결과 연대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대리 시위 설치 퍼포먼스인 <피켓라인>을 중심으로, ① 비대면 인스톨레이션 워크숍 및 퍼포먼스 스코어 기반의 국제협업과 유통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② 거리-공공공간 예술로서의 온라인 퍼포먼스 아이디어를 국제적인 동시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발전시키며, ③ 단순 유통을 넘어서는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으로서 넥스트 모빌리티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존재하지 않는 아시아 가사 돌봄 노동협회라는 가상의 협회를 구글 지도 내에서 디지털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국제협업과 유통에 유효한 키워드를 실험하고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내용과 구현, 국제교류 방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즉, 참여자가 관객이나 관계자가 아닌 멤버십, 협회 구성원으로 함께하기를 실험하며 국제적 커뮤니티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또한 컨셉 투어링의 보편적인 방식인 매뉴얼과 스코어를 토대로 하는 제작 방식을 넘어서 현지의 매개자와 유한한 창작과정을 만들고 작품이 추구하는 '관계 맺기'와 '서사탐구'를 수행적 과정으로 국제적 이동하기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영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내는 소외되고 삭제되는 경험과 지역의 서사를 보완하기 위해,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구글 번역기 대화를 통해 영어에 취약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구성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너럴 쿤스트의 리서치는 재난의 시대, 연대의 관점으로 보는 넥스트 모빌리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소셜 코레오그래피와 9개의 노래들> : 탠저린 콜렉티브(Tangerine Collective)

탠저린 콜렉티브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 중국교포의 단체 사교춤 리서치를 통해 춤/협오/금기의 문화적·역사적 상관관계를 비평적으로 성찰한다. 즉, 신체에 달라붙은 사회적 규제와 장치를 소셜 코레오그래피^{Social choreography}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인의 몸과 타자, 국가, 국제적 연결성에 주목하면서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국제이동성에 관한 메타 비평적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또한 카셀도큐멘타^{Kassel Documenta} 15, 베를린 아트 비엔날레^{Berlin Art Biennale} 등을 함께 관람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이동성을 위한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찾았다. 그리고 세미나와 예술가 3인의 개별적 예술 실천(스코어 방식, 글쓰기, 노래 만들기)을 통해 '춤에 관한 9개의 노래들'을 만들었다.

'소셜 코레오그래피와 9개 노래들의 춤/ 혐오/ 금기의 문화적·역사적 상관관계의 비평적 성찰은 '춤 작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춤이 생산할 수 있는 무수한 것들'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예술의 위치와 이동성을 동시에 고민한 것이며 리서치의 교류 과정, 즉 예술가의 프랙티스가 수행적인 사건이 되어 practice-as-performance/ practice-as-exhibition의 방법으로 국제 이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질문하는 것이다.

<JUDGE ME: 예술의 가치>

'JUDGE ME'는 2021년 10월 작가 왕징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초연되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예술의 가치가 오늘날 사회에 공정하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현지 공연 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인터뷰 및 연구과정을 통해 창작되었다. 공연은 법정 재판 형식으로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진행되며, 양측은 소비주의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로 점철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예술가를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논의하고 성찰한다.

이 리서치는 노르웨이의 왕징이, 중국의 푸린, 그리고 한국의 이희진 3인이 5개월에 걸쳐 <JUDGE ME >를 어떻게 한국적 맥락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형식의 국제적 이동 방식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동성을 탐구하는 차원에서 공연계 종사자 및 일반인 대상, 총 2그룹으로 나누어 온라인 설문조사와 비대면 인터뷰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노르웨이와 한국의 예술가 및 일반 대중이 예술의 가치에 대해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3인의 연구자는 온라인 원격 연구를 통해 컨셉 투어링 방식으로 작품의 현지화 가능성과 과제를 고민하였으며, 세 가지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① 컨셉 및 대본을 라이선싱하는 방식, ② 창작자가 현지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리서치 및 워크숍을 진행하며 현지 맥락에 맞게 재창작하는 방식 그리고 ③ 초연의 공연자가 모두 함께 이동하는 전통적인 투어 방식

발견 지점들과 넥스트 모빌리티의 미래

3팀의 예술단체별 리서치는 두 번의 과정 및 결과 공유 워크숍을 통해 다음과 같이 2022년 넥스트모빌리티의 발견지점을 정리 할 수 있다. 첫번째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 재난의 시대에 예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공통된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돌봄', '공동체', '협업', '연대', '예술의 가치' 등이다. 이것은 창작자에게 이 시대 예술의 국제교류/이동성/유통에 있어, 예술과 사회적 관계 맺기에 있어, 예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선행 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작년의 리서치에서는 어떻게 새롭게 이동 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였다고 한다면, 올해의 리서치는 '어떻게' 라는 방법론 보다는 '무엇이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너럴 쿤스트는 '넥스트 컨셉투어링'이라는 넥스트 모빌리티의 명료하고 효율적인 이동방식 보다 더 연대의 네트워크를 우선으로 하는 과정 설계를 할 것인가?를 작품의 구조로 삼고 있다. JUDGE ME는 심층적인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작품이 지역화 되는 과정에 있어 노르웨이와 한국이 함께 구축하는 공동의 서사에 주목하고 있다. 탠저린 콜렉티브는 탈식민지적 이동성과 국제이동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 갖기를 통해 새로운 관점의 연결과 얽힘, 유통성과 이동성, 그리고 연대를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필자가 2021년 넥스트모빌리티 리서치 결과에서 언급한 공연예술의 국제 이동성은 그간 '작품의 유통'이라는 점을 넘어서, 예술가 개인의 이동성, 현지 지역화를 통한 커뮤니티와 관계 맺기 등과 같은 예술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물질적 이동성을 넘어서 예술가의 생각과 사고의 이동, 가치의 이동, 문화 다양성을 지속하기위한 전위(傳位)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의 핵심은 과정 속에서 경험과 공유를 통한 예술 가치의 이동성인 것이다.

그러나 제너럴 쿤스트가 결론 부분에서 도전과제로 제시한 바와 같이 새로운 국제이동성과 유통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의 예술유통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것은 오로지 창작과 제작 형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매개/유통, 그리고 관객/소비의 형식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이동성에 있어 많은 부분이 디지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지역과 연령별 관객과의 커뮤니티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준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2023년부터 향후 2년간 넥스트 모빌리티는 호주아트마켓^{APAM}과 호환재단^{Australia-Korea Foundation}과 협력으로 호주와 한국 예술가의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서울국제 공연예술제와 멜번의 아시아 토포^{Asia TOPA} 또한 협력의 주체가 되어 2년간의 리서치를 통해 개발된 작품을 발표 예정이다.

PROFILE

최석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

현재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동시대 예술의 중요한 화두인 '예술과 도시', '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성', '예술과 과학 & 테크놀로지' 그리고 '새로운 국제이동성과 유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창작 리서치 레지던시, 랩, 워크숍 등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그는 춘천마임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한-영 상호교류의 해 2017-18 등의 공연예술축제에서 예술감독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축제 제작을 했다. 2005년 창립한 아시아나우(AsiaNow)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연극의 국제교류, 다양한 국제공동창작, 국제레지던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프로듀서와 드라마트루기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아시아 프로듀서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인 'Asian Producer's Platform(APP)'과 APP Camp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NEXT MOBILITY

RESEARCH 1

재난의 시대, 연대의 관점으로 보는
넥스트 모빌리티 - 피켓라인 :
아시아가사돌봄노동협회

제너럴쿠스트
(이혜령, 임현진, 이혜미)

재난의 시대, 연대의 관점으로 보는 넥스트 모빌리티 - [피켓라인: 아시아가사돌봄노동협회]

제너럴리스트

이혜령, 임현진, 이해미

리서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재난의 시대를 관통하며 예술의 국제적 연결성을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예술을 통한 국제적 연대로서 창제작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국제이동성의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한다. 국제적 이동성의 방법론에 대한 전년도 리서치 작업에 이어 예술 작품의 국제적 창작과 유통이 단절된 곳들을 서로 연결하고 작품이 이러한 연결과 연대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리 시위 설치 퍼포먼스인 '제너럴리스트'의 <피켓라인>을 중심으로, ① 비대면 인스톨레이션 워크숍 및 퍼포먼스 스코어 기반의 국제협업과 유통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② 거리-공공공간 예술로서의 온라인 퍼포먼스 아이디어를 국제적인 동시대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발전시키며, ③ 단순 유통을 넘어서는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으로서 넥스트 모빌리티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발견 지점 및 주요 시사점

오프라인 설치, 퍼포먼스, 온-오프라인 연계 전시 등으로 변주되어 온 피켓라인 시리즈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국제협업과 유통에 중점을 두고 유효한 키워드들을 실험하고 발전시켰다.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의 역할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상상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구현, 국제교류 방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구글지도라는 공간과 이 공간을 중심으로 서사를 형성하는 '아시아가사돌봄노동협회'로 구성된다. 아시아 지역 파트너 국가의 매개자를 통해 현지 노년 여성을 협회 일원으로

초대한다. 초대된 이들은 대화를 기반으로 하여 각자의 서사를 제공(공유)하게 되며, 이는 구글 지도 내에 '아시아가사노동돌봄협회(이하 '협회')' 베이스캠프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해당 서사의 키워드와 주요 이야기들은 데이터로 분석 또는 분류될 수 있지만 의미에 대해 판단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는다. 이들은 매개자와 참여자의 제안과 의지에 따라 예술적 개입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퍼포먼스로 구현될 수 있다.

1. 디지털 베이스캠프: 아시아에 없는 아시아가사돌봄노동협회라는 농담

구글 지도 내에 세운 가상의 협회를 베이스캠프로 삼아, 구글 문서도구나 유튜브 등에 리서치를 기록한다. 그린 모빌리티와 컨셉 투어링을 기초로 삼아 현지에 보낸 대리시위대(인형)가 설치되고, 이를 구글 스트리트뷰를 통해 연결한다. 현재 터크스 케이크스 제도 빅폰드 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추후 작업지역에 따라 임시 사무소도 가상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관객이나 관계자가 아닌 멤버십, 작품이면서 커뮤니티 : 협회 구성원으로 함께하기

전통적인 예술생산의 선형적 구조를 탈피해, 작가-프로듀서-참여자-매개자-관객이 모두 협회의 멤버로서 위치하고 작업에 개입한다. 협회정기 모임에 참여하고 이때 가이드가 되는 스코어를 따라 수행한 퍼포먼스의 과정과 기록물이 모두 작업의 결과물이 된다. 비대면 상태의 원거리 작업이 발생시키는 약점을 최소화하게 돕는 제작 방식이다.

3. 유연한 창작 과정 : 매개자와 함께, 메뉴얼대로 하지 않기

컨셉 투어의 보편적인 방식인 메뉴얼 제작과 그에 따르는 현지 제작에서 생겨나는 손상과 마찰을 피하며, 작품이 추구하는 '관계맺기'와 '서사탐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매개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추진한다. 초기에 계획한 적 없는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여지를 열어 줌으로써, 소외되지 않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와 작업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4. 비영어권을 소외시키지 않는 전략: 구글 번역기 대화

참여자 모두 동일한 번역툴을 이용해 상대 국가의 언어로 작업에 참여한다. 이는 영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평등하게 보이지만 소외되고 삭제되는 경험과 서사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 작업이 멤버십을 공유하고자 하는 아시아지역 노년여성들이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영어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한다.

5. 수행적 과정으로서 이동하기 : 시위대이동자원봉사

각자의 상태와 서사를 담아 만든 분신인형의 대리시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연대하는

지역으로 가서 수행하는 오프라인 대리시위가 필수적이다. 이를 새로운 이동성의 맥락에서 수행하기 위해 '시위대이동자원봉사'를 고안했다. 유기견이동자원봉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대상 국가로 이동하는 개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 국가로 이동해 대리시위를 수행하게 한다.

결론

• 결론 요약 (Conclusion)

감염병과 전쟁이 뒤엉킨 최근 몇년은 국가적 단위에서 논의하고 경쟁하고 합의해온 것들이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 리서치는 국제교류와 협력, 유통을 통한 예술적 국제 연대의 가능성을 살핀다. '컨셉 투어링'으로 대표되는 넥스트 모빌리티가 명료하고 효율적인 교류에 목적을 두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의도적으로 효율성보다는 연대의 네트워크를 우선하는 과정 설계를 작품의 구조로 삼는다. 또한 자본주의 시스템 내의 예술유통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 유효한가를 질문하며, 작품을 사고파는 관계를 넘어 파트너 찾기를 통한 자원 마련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작품이 담고 있는 '아시아', '여성', '돌봄노동'이라는 서사와 이것을 담아내는 시스템으로서 '넥스트 모빌리티'가 상충하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한다.

• 도전 과제 (Challenges) 및 이후 계획 (Next Step)

온라인 퍼포먼스로서의 이동과 협업 가능성을 제시하였음에도 여전히 디지털 관객의 정의와 범주가 기존 관객과 기성 언어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된다. 디지털 관객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정하고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는지 살핌으로써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닌 노년 관객이나 디지털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관객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대폰과 컴퓨터가 1차 매개가 되고, 구글이라는 시스템이 2차 매개가 되는 과정에서 집단적 몰입의 체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과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 머무는 관객들의 상황이 달라 각기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도전 과제다. 이에 구글 맵과 구글 문서도구의 퍼포먼스 문법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다양한 형태의 실험과 리허설을 통해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PROFILE

제너럴쿠스트

이혜령

이혜령은 제너럴쿠스트의 대표 작가로, 전문 배우가 없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를 만든다. 극장 바깥에서 극장 규범을 통과하지 못한 관객들이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일, 볼 수 있는 것을 탐색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임현진

임현진은 독립 기획자로 축제 프로그래밍, 공연 제작, 국제교류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도시-공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축제, 예술단체들과 함께 작업한다. 공연을 하며 만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재미난 질문들을 찾아내는 것이 즐겁다.

이혜미

이혜미는 제너럴쿠스트에서 연출과 기획을 보조한다. 공연 제작사부터 플랫폼 스타트업, 게임 회사 근무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작품 창작에 기여하고 있다.

NEXT MOBILITY

RESEARCH 2

소셜 코레오그래피와 9개의 노래들
by 탠저린 콜렉티브

탠저린 콜렉티브(장혜진, 김재리, 임지애)

소셜 코레오그래피와 9개의 노래들 by 텐저린 콜렉티브

텐저린 콜렉티브

장혜진, 김재리, 임지애

체인 큐레이션, 스노우볼 큐레이션 등의 방법론을 통해 배제와 차별없는 'togetherness'를 제안하고, 돌봄, 연결, 얽힘, 상호의존성, 관계망을 경유하는 예술의 생태학적인 접근들을 소셜 코레오그래피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러한 연대와 네트워크의 실천을 통한 새로운 탈식민지적 창제작 방식을 제안한다.

리서치 배경 및 목적

○ 리서치의 목적은 춤과 혐오와 금기의 문화적, 역사적 상관관계를 다루고 비평적 성찰을 중심으로 '춤 작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춤이 생산할 수 있는 무수한 것들'에 주목하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예술의 위치와 이동을 고민한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춤금기와 춤혐오와 관련된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것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논의하여 팬데믹을 통과하며 우리가 겪은 신체에 달라붙은 사회적 규제와 장치들, 네트워크 등의 문제를 소셜코레오그래피의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 개인의 몸과 타자, 국가, 국제적 연결성에 주목하면서 탈식민지적,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국제이동성에 관한 메타비평적 리서치를 진행한다.
- 춤과 예술적인 매체를 사용하여 혐오와 차별을 넘어 공동의 감각을 회복하고 예술적 감수성으로 서로 연대하기 위한 춤, 노래, 합창, 시를 통한 아티스틱 프랙티스를 시도한다.
- 리서치의 과정을 공공에 환원하고 관심의 공동체와 공유하기 위한 전시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발견 지점 및 주요 시사점

리서치는 국제이동성에서 문화와 국경에서 일어나는 식민적 사고에 대한 비평에서 출발했다. 이는 춤이 완전히 탈식민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게나 질량도 가지지 않고 공간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연결되어 춤에 관한 노래 9개를 만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타인의) 춤에 대한 금기와 혐오에 대한 개념인 춤공포증/안무혐오(Choreo-phobia)을 재전유하여 신체와 신체 사이의 접촉, 연결, 초대, 환대에 대한 질문을 예술에서의 큐레이션과 네트워크, 삶과 예술의 문제로 연결했다.

○ 연구의 방법은 세미나, 현장연구, 현장답사, 개별실천, 공동실천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세미나는 텐저린 콜렉티브는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모두 다른 점(한국, 독일)을 고려하여 매주 1회 줌미팅의 방식으로 총 20회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내용과 형식은 주제별로 달라지며, 제안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어떤 방식이든 선택할 수 있는 열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세미나 중에 가닿게 된 개념이 '안무혐오/춤공포증'이다.

둘째, 현장 연구 및 답사는 춤을 예술적 영역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라보고 현장 연구도 함께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실제 리서치 및 전시의 주요 대상인 도림천 및 영등포구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등이 주요 장소였다. 또한 본 사업의 주제와 맞닿아있는 돌봄, 연대, 이동성, 국제교류, 공동체, 협업 등의 현대예술적 실천과 비평을 살피기 위한 Kassel Documenta 15, Berlin Art Biennale 등을 함께 관람했다. 이를 통해 다다르게 된 국제이동성을 위한 키워드는 '회복'이었다.

셋째, 개별실천의 방식은 세미나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예술적 매체를 이용하여 실험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며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스코어 방식, 글쓰기, 노래 만들기 등 세 명의 예술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적 실천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것이 '춤에 관한 9개의 노래들'이다.

넷째, 리서치의 결과물 전시와 공공과의 공유를 위한 공동의 실천을 마지막으로 진행했다. 리서치에서 얻은 자료들을 각 주제별로 분류하고 디스플레이의 방식과 공간 디자인을 함께 설계했다. 이 과정부터는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와 음악감독이 참여하여 공동의 작업으로 진행했다. 전시는 10.29 참사로 취소되었으나, 2023년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

결론

• 결론 요약 (Conclusion)

탠저린 컬렉티브의 연구 '소셜코레오그래피와 9가지 노래들'은 춤과 혐오와 금기의 문화적, 역사적 상관관계를 다루고 비평적 성찰을 주로 다룬다. '춤 작품을 생산하기'보다는, '춤이 생산할 수 있는 무수한 것들'에 주목하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예술의 위치와 이동을 고민한다. 리서치의 과정과 누구와도 교류하고 함께하기 위한 집단 합창, 쓰기, 말하기 등 예술가의 프랙티스도 소개했다. 또한 이 프랙티스가 수행적인 사건이 되어 practice-as-performance/practice-as-exhibition의 방법으로 국제 이동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토론했다.

• 도전 과제 (Challenges)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9가지 노래들과 담론들은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음 단계의 탐색이 필요하다.

• 이후 계획 (Next Step)

- 2023년 1월 서울 시청각랩에서 리서치 전시 및 워크숍
- 리서치 과정과 노래 각국어로 번역 및 녹음
- 개념적 작업으로서의 이동 모색: 큐알코드만 보내기, 큐알코드를 친화경 티셔츠/에코백/스티커 등으로 만들어 페스티벌 점령하기, 현지 음악감독과의 협력과 녹음으로 현지인 합창 진행, 노래를 담은 담론적인 전시 자체의 투어링 등

PROFILE

탠저린 컬렉티브

장혜진

장혜진은 안무가/큐레이터/예술자문/에세이스트 등으로 북중미와 유럽 그리고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미국 무브먼트 리서치, 뉴욕 라이브 아트, 루마니아 국립현대미술관-국립무용센터, 네덜란드 댄스랩, 멕시코 레보라토리오 콘덴사시옹, 일본 세송 재단 등에서 상주예술가로 활동했다.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 예술대학의 안무 석사 프로그램의 멘토를 역임하고 있고, 유럽 트랜스아트/리버풀 존 무어 대학교에서 프랙티스 베이스 리서치 박사과정 중에 있다.

김재리

김재리는 한국에서 드라마터그, 연출가, 이론가, 강사,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 2012년 안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3-2014에 국립현대무용단의 드라마투르그로 재직했다. 성균관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무용역사기록학회 공동편집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에는 컨템퍼러리 댄스와 퍼포먼스 분야에서 독립 드라마투르그로 활동하고 있다.

임지애

임지애는 한국춤을 전공하고 베를린 Solo/Dance/Authorship(SODA) HZT/UdK 안무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 독일에 거주 중이다. 공연매체라는 조건 안에서 움직임과 안무적 실험을 통해 전통과 한국춤이 동시대에 어떠한 다양한 의미를 갖는지 고민하고 있다. 임지애가 바라보는 전통은 과거의 환영과 영광에 대한 찬미(worship)라기보다는 실험적 질료로써 비평이 발생하는 창작적 공간에 가깝다. 최근 '춤의 이주'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산, 나무, 구름과 호랑이>를 안무했으며, '몸의 기억'을 다룬 <너의 동방, 나의 유령>, 삼부작 <일본 안의 십년-Still Moving, Transition, Reprise>, '한국무용사'를 일인의 몸으로 아카이빙 하는 <한국무용사담> 그리고 <뉴 몬스터> 등을 발표했다. 임지애는 독일 <탄츠 Tanz> 매거진 '주목할만한 신인 안무가' 및 <월간객석> '차세대 이끌 젊은 예술가 12인'에 선정된 바 있다. 베를린문화지원금(Berliner Senat für Kultur und Europa)과 독일의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금을 수혜 받은 바 있다. 현재 독일 HZT/UdK 안무학교의 멘토로 담론을 이끌고 있다.

NEXT MOBILITY

RESEARCH 3

JUDGE ME: 예술의 가치

왕징이, 푸린, 이희진

JUDGE ME: 예술의 가치

왕징이, 푸린, 이희진

리서치 배경 및 목적

'JUDGE ME'는 작가인 왕징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의 가치가 오늘날 사회에 공정하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2021년 10월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초연되었으며, 현지 공연 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현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창작되었다.

공연은 법정 토론 형식으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으로 진행된다(베르겐 버전에서는 작가가 양측 모두를 연기함). 양측은 소비주의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로 점철된 현대 사회에서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이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딜레마를 고찰한다. 공연에 등장하는 배우는 실제 인터뷰와 커뮤니티 워크샵에 참여한 일반인이며, 지속적으로 해외 현지의 커뮤니티와 협업하는 방식의 컨셉 투어링도 고려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JUDGE ME'를 한국적 맥락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더불어 공연 작품의 이동성을 탐구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구축하고 있는 현장의 예술가, 극장 관계자, 기관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젝트의 향후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했다.

왕징이, 푸린, 이희진 3명으로 구성된 팀은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와 비대면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1)공연계 종사자 2)일반인 대상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비대면 인터뷰는 줌을 통해 1) 비예술가 2)예술가 3)아마추어 공연자 혹은

커뮤니티와 함께 작업하는 예술가 4)극장 및 기관 관계자 총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발견 지점 및 주요 시사점

본 연구는 노르웨이와 한국의 많은 유사점을 시사한다.

예술가의 관점

- 1) 양국 예술가의 절반 이상은 예술 작업만으로 생존이 어려우며, 공적 자금이 주요 수입원이라고 응답
- 2) 급여, 근로시간, 사회로부터의 존중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편이나, 자신의 관심사, 동료와의 협력관계, 동기부여, 자아실현에는 만족도는 높음
- 3)다수의 예술가들은 현대 공연 예술이 사회적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

대중의 관점

- 1) 응답자 다수가 현대 예술 종사자들의 창작물은 주로 자기 표현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고 답변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예술과 예술가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
- 3) 공연 및 전시의 소개 자료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언어로 이뤄져 관객과 예술작품을 연결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의견
- 4) 예술가의 수입과 관련해서는 예술가들이 평균적인 정규직 수준의 수입을 갖는 것이 공평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예술가들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팔아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나라의 차이점을 크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이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보다 그들의 작품에 더 만족한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 예술가들은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보다 그들의 작품에 덜 만족한다.
- 2) 노르웨이 예술가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해당 지표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3) 불안정한 경제 상황 외에 예술가들에게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을 문 의하면 노르웨이의 예술가들은 끝없이 공적 자금을 찾으 며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회에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는 반면, 한국의 예술가들은 예술에 무관심한 사회 분위기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 4) 노르웨이의 예술가들에 비해 다수의 한국 예술가들이 소셜 미디어가 그들의 작품을 홍보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결론

• 결론 요약 (Conclusion)

원격 연구를 통해 한국 대중의 현대 예술에 대한 시각, 공연예술계의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현지의 이슈와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대본 개발의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본 연구는 'JUDGE ME'의 잠재적인 참가자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도전 과제 (Challenges)

한국의 창작자 및 제작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커뮤니티와의 작업 방식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본 리서치 과정에서 컨셉 투어링 방식으로 작품의 현지화 가능성과 과제를 고민하였으며, 세 가지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 1) 컨셉 및 대본을 라이선싱하는 방식
- 2) 창작자가 현지에 장기간 체류하며 리서치 및 워크숍을 진행하며 현지 맥락에 맞게 재창작하는 방식
- 3) 초연의 공연자가 모두 함께 이동하는 전통적인 투어 방식

• 이후 계획 (Next Step)

향후 'JUDGE ME'가 한국에서 현지화된다면 아티스트 및 현지 커뮤니티와 워크숍/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진행하여 보다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PROFILE

왕징이(Jingyi Wang)

Jingyi Wang은 노르웨이 베르겐에 거주하는 퍼포먼스 크리에이터이자 큐레이터이다. 그녀는 광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공연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학제간, 개념중심, 참여형 퍼포먼스를 특징으로 한다.

푸린(Lynn Fu)

Lynn Fu는 상하이와 뉴욕에 기반을 둔 독립 큐레이터이자 프로듀서이다. 그녀의 경력은 중국, 아시아 그리고 세계 간 국제 협력 및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녀의 관심사는 공연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희진

이희진은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이자 프로듀서그룹 도트의 공동 창립자이다. 그녀는 연극, 무용 및 학제간 예술 분야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한다. 한국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커넥터 역할을 하며 해외 공동제작에 집중해왔다.

NEXT MOBILITY

INTRO

New International Mobility
and Circulation : From How
to Move? to What Needs
to Move Together with the
How?

Kyu Choi

Artistic Director,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New International Mobility and Circulation : From How to Move? to What Needs to Move Together with the How?

Kyu Choi
Artistic Director,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Next Mobility is a research project on new international mobility and circulation in the post-pandemic era, which started in 2021. This project has been co-organized by KAMS connection run by the Performing Arts Planning Team at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PAMS), and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 This research project is questioning what the new international mobility and circulation models are for art, artists and artworks in the post-pandemic era.

The first question is, how should international mobility, touring, and circulation change in the post-pandemic era, and what are the new formats? Second, what is international mobility when considering the environ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crises? And third, what is the digital mobility that is being transform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2022 Next Mobility, KAMS Connection research, Hyeryung Lee, Jin Yim, and Hyemi Lee of Generalkunst, He Jin Jang, Jae Lee Kim, and Jee-Ae Lim of Tangerine Collective, and Jingyi Wang, Lynn Fu, and Heejin Lee of JUDGE ME participated. In addition, the works of artists with the potential for Next Mobility were introduced through PAMS pitching at the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And during the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Rimini Protokoll's <Conference of the Absent> was introduced from the perspective of Next Mobility, "creat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out anyone moving," and Stefan Kaegi's Master Class (Workshop) was held to discuss "Different types of art's International Mobility."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organize the participants' research questions, topics and result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Next Mobility, with a focus on KAMS Connection 2022.

<Picketline: Asia Housekeeping and Care Work Association> by Generalkunst

The research of <Picketline> by "Generalkunst" began by connecting places where the international creation and circulation of artworks have been cut off, and by asking what role artworks can play in international connection and solidarity.

In other words by studying <Picketline>, a proxy protest installation performance, the research aimed to; ① develop idea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circulation based on contact-free installation workshops and performance scores; ② develop online performance ideas as street-public space art to a format in whic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udiences can participate; ③ explore Next Mobility as a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solidarity that goes beyond simple circulation.

This research created a fictitious association called the Asia Housekeeping and Care Work Association and established its digital base camp within Google Maps, and experimented with and developed effective keyword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circulation. In this process, it tried to create a model that can comprehensively manage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work as well as looking at how international exchange can be carried out with this model. In other words, it tried to create an international community by experimenting by having the participants as members of an association rather than audience members or staff members. In addition, it went beyond the generally accepted way of doing concept touring, which is based on manuals and scores, to create a finite creative process with a local mediator. It aims to move the "relationship" and "narrative exploration" that the work pursues as a performative process internationally. In addition,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regional narratives and the alienated and redacted experience that English-centered communication creates, it actively encourages the participation of non-English speaking members who do not speak English well, by providing google Translation services despite the limitations that still exist. Generalkunst's research sought to realize the Next Mo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solidarity in the era of disaster.

<Social Choreography and Nine Songs> by Tangerine Collective

The Tangerine Collective critically reflects o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rrelations between dance, hatred and taboos through research on the group social dance of Korean-Chinese conducted in Dorimcheon, Yeongdeungpo-gu, Seoul.

In other words, the group reviewed the social regulations and devices that have become embodi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horeography, and conducted meta-critical research on international mobility and did this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individual body, the others, the nation, and international connectivity.

Also, they visited Kassel Documenta 15 and Berlin Art Biennale together and identified “restoration” as the keyword for international mobility. And through seminars and individual art practice (score method, writing, song making) of three artists, created “9 songs about dance”.

Critical reflection o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rrelation of dance, hatred, and taboo in “Social Choreography and Nine Songs” focused on “the myriad things dance can produce” rather than “producing dance works.” This was to explore where art stands, and where it’s headed for, in the post-pandemic era simultaneously, and to question whether the exchange process of research, i.e., artistic practice, can become a performative event and move internationally as practice-as-performance/practice-as-exhibition.

<Value of Art> by <JUDGE ME>

<JUDGE ME> is a work created and based on the experience of artist Jingyi Wang. It premiered in Bergen, Norway in October 2021. This work deals with the issue of whether the value of art is fairly reflected in today’s society. It was crea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research processes involving performing arts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The performance is in the form of a court trial and the performers are divided into plaintiffs and defendants. Both sides discuss and reflect on the value of individuals, including artists, in today’s society that is dominated by consumerism and entertainment.

A team of three members, Jingyi Wang from Norway, Lynn Fu from China, and Heejin Lee from Korea, conducted the research over five months. In the study,

they looked at how to reconstruct <JUDGE ME> in a Korean context, and looked for a new form of international movement.

In order to explore mobility, the study was conducted on two separate groups: those who work 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and the general public. Two groups were subject to contract-free interviews and online surveys. The results discovered man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views of the value of art held by artists and the public from Norway and Korea.

The three researchers explored the possibility and challenges of localization of artwork in a concept touring format through online remote research, and derived three models as follows: 1) Licensing concept and script 2) The creators staying in the country for a long time and carrying out research and workshops to re-create the work according to the local context 3) All performers of the original work moving to the destination in a traditional tour format

Findings and the Future of Next Mobility

The three art groups shared their research processes and results respectively through two workshops. From that, the findings of 2022 Next Mobili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questions about the role of art in the post—pandemic era and the era of disaster appear across the board. Common keywords that have appeared include “care”, “community”, “collaboration”, “solidarity”, and “value of art.” This means that, in international exchange, mobility and circulation, and in art and social relationship building in this year, questioning the role of art is the first thing that creators do. Second, while last year’s research focused on finding the answer for the question, “how to find new ways to move?”, this year’s research focused more on “what needs to move together with the how?”, rather than simply “how” to find ways to move. Generalkunst is exploring the question, whether they should design a process that prioritizes the network of solidarity over “Next Concept Touring”, the way of Next Mobility that moves art clearly and efficiently. That exploration runs through the structure of their work. JUDGE ME focuses on the common narrative that Norway and Korea build together in the process of localization of works through in-depth surveys and interviews. Tangerine Collective explores connections and entanglement, fluidity and mobility, and solidarity from a new perspective through critical awareness of postcolonial mobility and

international mobility. This is in the same context as I mentioned in the 2021 Next Mobility Research results sharing session. The international mobility of the performing arts has meant the “circulation of works” so far. But now it’s going beyond that concept, and it’s closely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art, such as the mobility of individual artists and forming relationships with communities through localization. In other words, mobility is more than a materialistic concept any more. It is a process of transfer that takes place in order to sustain the movement of artist’s thought, movement of values, and cultural diversity. What’s vital in that process is to ensure the mobility of artistic values through experiencing and sharing.

However, as suggested by Generalkunst as a challenge in the conclusion of their researc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new international mobility and circulation is effective for driving art circulation and economic value creation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remains an unanswered question. This means that not only formats of creation and production must change, but also mediation/circulation and audience/consumption format must change alongside it. The research also mentions the need for careful consideration and preparation for regions with weak digital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of audiences in different age groups, as a large part of international mobility adopts a digital format.

For the next two years from 2023, Next Mobility team will work with APAM and 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to carry out the project as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etween Australian and Korean artists. In 2025,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and Melbourne’s Asia TOPA will also become collaboration partners to develop a work through research over two years, and they will then present this.

PROFILE

Kyu Choi (Artistic Director,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Currently working as artistic director at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2022-2026.

Kyu Choi is a festival director, creative producer, and researcher. He has built up expertise in theme-based creative practices. He has extensive experience in cross-cultural and interdisciplinary work and is a leading proponent of contemporary arts networks in Asia. Under the themes of ‘diversity and inclusion in art’, ‘art and the city’, ‘art and science & technology’, and ‘next mobility/circulation’, Kyu has recently developed several research-led workshops and practices including ‘Connected city’, ‘The Korea DMZ lab’ and ‘Accessibility and creative development for arts and disability’. Kyu has worked as artistic director as well as creative director for the UK/Korea Season Festival 2017-18, the 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 and the Ansan Street Arts Festival. He is a founder of AsiaNow productions in 2005 and has worked to develop the Asian Producers’ Platform and APP Camp 2014-2022.

NEXT MOBILITY

RESEARCH 1

In the Age of Disaster, Next
Mobility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Solidarity
[Picketline : Asia Housekeeping
and Care Work Association

Generalkunst

In the Age of Disaster, Next Mobility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Solidarity [Picketline:Asia Housekeeping and Care Work Association]

Generalkunst

Research background, Purpose, and Questions

This research began by questioning the international connectivity of art while going through the era of disaster. As an international solidarity through art, it develops creative production ideas and explores new methodologies of international mobility. Following the research work of the previous year on the methodology of international mobility, the specific goal is to connect spots where the international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art works have been cut off, and to examine what role artworks can play in making such connections and building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Picketline> of 'Generalkunst', a proxy protest installation performance, in order to: develop idea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distribution based on non-face-to-face installation workshops and performance scores; evolve online performance ideas as street/public space art into a format in whic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udiences can participate; and explore Next Mobility as a possibility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that goes beyond mere circulation.

Findings and Learning points

The Picketline series has been transformed into various forms such as physical installations, performances, and digital-physical hybrid exhibition, etc. During this process, we have pu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circulation at the center to experiment on meaningful keywords and develop them. We planned specific roles for th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and explored possibilities of

what they can be in order to come up with a model that can comprehensively manage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work as well as how international exchange can be carried out with it.

It consists of Google Maps as the space and the 'Asia Housekeeping and Care Work Association', which creates a narrative around that space. Local elderly women are invited to become members of the association through intermediaries from partner countries in Asia. The invitees will provide (share) their own narratives based on the conversation, which then will be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the base camp of the 'Asia Housekeeping and Care Work Association (hereinafter 'Association')' in Google Maps. The keywords and main stories of the narratives can be analyzed or classified as data, but they are not judged or marginalized for their meaning. These can be created as online or offline performances through artistic intervention depending on the proposals and wills of the intermediaries and participants.

1. Digital Basecamp: A joke - the Asia Housekeeping and Care Work Association that does not exist in Asia

With the virtual association established in Google Maps as the base camp, the research is recorded on Google Docs or YouTube. Based on Green Mobility and concept touring, proxy protestors (dolls) are sent to the site to be installed, and then get connected through Google Street View. It is currently set up in the middle of the Big Pond in the Turks and Caicos Islands, and a temporary office may be established virtually depending on the area we will be working in in the future.

2. Membership without being an audience member nor an insider, and the work that is serving as a community at the same time: participating as an association member

Breaking away from the linear structure of traditional art production, artists, producers, participants, intermediaries, and audiences all take positions as association members and engage with the work. They participate in the association's regular meetings, and that's when the work is performed according to the score as its guideline. Then the process and recording of the performance all become the outcome of the work. This production method helps minimize the vulnerabilities of work being produced in a remote non-face-to-face setting.

3. Flexible creative process: working with a mediator, and not following the manual

It is a way to avoid the damage and friction that arise from creating an instruction manual and subsequent local production, which is a common method of concept touring. It also allows 'relationship building' and 'narrative exploration' that the work pursues. This promotes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intermediary.' This leaves room for ideas not initially planned to be materialized, and therefore, is expected to allow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and collaboration that doesn't alienate anyone.

4. Strategies to not alienate non-English speakers: Google-Translated Conversation

This compensates for two vulnerabilities: first - English-centered communication inevitably creates experiences and narratives that seem to be equal, but in fact alienating and redacted, and second - this work is based on the fact that older women in Asia who want to share memberships do not speak good English but use different languages depending on which region they are from.

5. Moving as a part of the practice: volunteers transporters for the protestors

The proxy protestor dolls are created to reflect each member's circumstances and narratives. In order for their demonstration to be fully carried out physically, they need to be moved to the area of solidarity. To achieve that in the context of new mobility, 'volunteer transporters for the protestors' program was devised. The idea comes from a volunteer transporter for abandoned dogs. The volunteers who are traveling to target countries would help move the protestors so that they can do the proxy protest.

Conclusion

• Conclusion

In the last few years, the world has been tangled up in infectious diseases and wars. It has been made clear that what has been discussed, competed, and agreed upon at the national level must be expanded to the global level. This research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artistic solidarity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cooperation, and circulation. If Next Mobility, represented by 'concept touring', aimed at clear and efficient exchanges, this project deliberately puts a process design that prioritizes the network of solidarity rather than efficiency as the structure of the work. In addition, it asks whether art circulation and economic value creation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are effective, and aims to raise funds through finding partners, which goes beyond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 of buying and selling works. In this process, the 'Association' plays a role that helps the narratives of 'Asia', 'women', and 'housekeeping and care work' contained in the work and 'Next Mobility' as a system that contains those narratives and does not conflict against one another.

• Challenges and Next Step

Despite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movement and collaboration as an online performance, we still find ourselves asking whether the 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of digital audiences still remain in the existing languages and existing audiences. We will define what the digital audience looks like more specifically and look at what is yet to be ready in order to continue exploring ways to meet audiences in regions where digital infrastructure is not sufficient or where non-digital natives such as elderly audiences are a majority. In addition, the following two issues remain as challenges that require thorough research: first, the fact that the sense of collective immersion can be weakened in the process where mobile phones and computers become the primary mediator and the system that is Google becomes the secondary mediator, and second, the fact that audiences in different times and spaces can face different issues due to their varying circumstances. Therefore, we intend to continue examin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Google Maps and Google Docs in the context of performing arts literacy through various experiments and rehearsals, and develop them further.

PROFILE

Generalkunst

Hyeryung Lee

Under the name General Kunst, Hyeryung Lee creates audience-participatory performances without professional performers. She has been mainly interested in the spectators who have not passed through the norms of theater-going: night-shift workers, the physically disabled, toddlers, children, care workers, etc.

Jin Yim

Jin Yim is an independent producer based in South Korea. She has been working on a wide range of cultural projects with artists, festivals and international partners since 2010. Her main interests are in the arts in public spaces and international mobility of contemporary arts.

Hyemi Lee

Hyemi Lee is the assistant director of General Kunst. She has been contributing to performing arts creation based on her experience in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performing arts production companies, platform startups and game companies.

RESEARCH 2

NEXT MOBILITY

Social Choreography and
Nine Songs by Tangerine
Collective

Tangerine Collective

Social Choreography and Nine Songs by Tangerine Collective

Tangerine Collective This study proposes 'togetherness' without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through methodologies such as chain curation and snowball curation, and explores the ecological approaches of art via caring, connection, entanglement, interdependence, and relational networks from a social choreographic perspective. It proposes a new post-colonial creative production method through the practice of such solidarity and network.

Research Background, Purpose, and Questions

-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al with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rrelation between the aversion to dance and the act of tabooing it; pay attention to 'the myriad things that dance can produce' rather than 'to produce dance pieces' while mainly focusing on critical reflection; and explore where art stands and moves to in the post-pandemic era. The detailed goals are as follows.
- To collect cases related to aversion to dance and the act of tabooing it and discuss its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 so that the issues such as network or social restrictions and dispositif have become embodied as we went through the pandemic can be reexamined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choreography.
- To conduct meta-critical research on international mobility from a postcolonial and geopolitical perspective while paying attention to individuality, othering,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connectivity.
- To explore artistic practices through dance, song, choir, and poetry using dance and artistic media, in order to: go beyond hatred and discrimination;

recover shared senses;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one another with artistic sensibility.

- To carry out exhibitions and workshops to give the research process back to the public and share it with the community of interest.

Findings and Learning points

The research started from a critique of colonial thinking in international mobility that takes place in cultural borders. This led to the question, "Shouldn't dance not have any weight or mass, nor occupy any space in order to be completely decolonized?",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nine songs about dance. In this process, we discovered choreo-phobia, which is the concept of taboos and aversions to (others') dance, and reappropriated it to link the questions about contact, connection, invitation, and hospitality between a body to another body and issues of curation and network in art and life.

- The research method consisted of seminars, field research, field visits, individual practice, and joint practice.

First, a total of 20 seminars were held on Zoom once a week, considering that the Tangerine Collective members reside in different areas between Korea and Germany. The topics and formats of the seminars vary by subject, and it was carried out in an open manner where whoever proposed a seminar could set it the way they wanted it. During these seminars, the concept of 'choreo-phobia' has emerged as our main interest.

Second, the collective conducted field research and visits while considering dance as a phenomenon manifested by various subjects not only in the artistic realm but also in society and culture as a whole. In Seoul, children's parks in Yeongdeungpo-gu and Dorimcheon were the two main areas for research and exhibition. We also watched Kassel Documenta 15, Berlin Art Biennale, etc. to examine contemporary art practice and criticism regarding care, solidarity, mobility, international exchange, community, and collaboration, which are closely linked with the themes of this project. This effort led us to identify a keyword for international mobility, 'restoration'.

Third, each member experimented with the seminar topics using artistic

medium through their own individual practices, shared the outcome and received feedback. The collective carried out artistic practices in their own way, such as score method, writing, and song-making. '9 songs about dance' was the outcome from this process.

Fourth, we held an exhibition and carried out a joint practice to share the outcome with the public as the last step.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research were sorted by subject, and the collective created a design for a space to display them. From this process, the assistant curator and the music director participated to make it a shared practice. The exhibition had been canceled due to the October 29 disaster, but it was rescheduled for January 2023.

Conclusion

• Conclusion

Tangerine Collective's research, 'Social Choreography and Nine Songs' deals with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rrelations between dance, hatred, and taboo while mainly focusing on critical reflection. Rather than 'producing dance pieces', it pays attention to 'the myriad things dance can produce' and explores where art stands and moves to in the post-pandemic era. The research process was introduced along with the artists' practices including singing-along, writing, and speaking which would allow anyone to interact with or participate in the practice. The members also discussed the possibility that this practice could become a performative event and move internationally in a practice-as-performance or practice-as-exhibition.

• Challenges

The collective need to explore what direction we can take to continue further research on the outcome, the nine songs and discourses as the next step.

• Next Steps

- Research exhibition and workshop at Audio Visual Pavilion Lab in Seoul in January 2023
- Translating the research process and the songs and recording them in multiple languages

- Exploring the transition to become a conceptual work: sending QR codes only, taking over festivals by making QR codes into eco-friendly T-shirts/eco bags/stickers, etc., collaborating with a local music director to record a choir with locals, touring of the discursive exhibition itself that contains songs, etc.

PROFILE

Tangerine Collective

He Jin Jang

He Jin Jang is a multicity-based choreographer/curator/dramaturg/essayist. She was invited as Artist-in Residence at Movement Research (US), New York Live Arts (US), National Contemporary Museum of Bucharest/National Dance Center (Romania), Dancelab (Netherlands), Laboratorio Condensacion (Mexico), Saison Foundation (Japan). She currently serves as mentor of Dance MFA Program at University of the Arts Philadelphia, USA. Jang is currently pursuing her PhD in Practice-based Research at Transart Institute/Liverpool John Moore University.

Jae Lee Kim

Jae Lee Kim lives and works in Korea as a dramaturg, director, theorist, lecturer, and curator. After receiving her Ph.d in choreology in 2011, she worked as a dramaturg at t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from 2013 to 2014. She is a lecturer at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She is also co-editor of the Society of Dance Documentation and History. She currently works as an independent dramaturg in contemporary dance and performance.

Jee-Ae Lim

Jee-Ae Lim is a Berlin and Seoul based dancer and choreographer. She studied traditional Korean dance in Seoul and completed her master's degree in Solo/Dance/Authorship at the HZT Berlin. Over the years

she has developed a distinct choreographic practice between the two languages of contemporary and traditional dance. Her artistic interest lies in the observation of the body as a moving archive – as a conveyor of cultural experiences and memor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 and contemporaneity, individual memory and cultural remembrance, mobility and homeland. The impetus for her work is her own experience of diaspora, which she reflects corporeally in dance.

Her work has been shown at Sophiensaele Berlin, Kampnagel Hamburg, Tokyo Metropolitan Theater, Art Sonje Center Seoul and Asia Culture Center Gwangju, among others. In 2014 she was voted 'Hoffnungsträgerin' ('Promising Artist') in the Tanz Magazine Year in Review issue as well as 'Young Leading Artist 2015' by Gaeksuk Magazine. Between 2014 and 2020 she received several grants from the Berlin Senate and the Arts Council Korea.

NEXT MOBILITY

RESEARCH 3

JUDGE ME : Value of Art

Jingyi Wang, Lynn Fu, HeeJin Lee

JUDGE ME : Value of Art

Jingyi Wang
Lynn Fu
Heejin Lee

Research background, Purpose, and Questions

JUDGE ME is a performance in the form of a court trial that brings about discussion and reflection about the ultimate dilemma of every single individual including artists regarding their value in today's society that is dominated by consumerism and entertainment.

Based on Jingyi Wang, the artist's own experience and reflection, JUDGE ME offers an achingly honest, thought provoking and in-depth local research based performance led by the allegation between Plaintiff and Defendant (both portrayed by the artist in the Bergen version) debating on whether artists' values are fairly reflected in today's society.

The fully scripted court debate is devised based on interviews and workshops with the local communities from where the witnesses for both sides are selected. When coming to international presentation, JUDGE ME is a show that embraces a light and slow touring concept that has reflected how the artist responds to the post-pandemic world.

Spanning from July to November 2022, Jingyi Wang (artist) and Lynn Fu (creative producer), together with Heejin Lee (independent producer from Korea) conducted an online research with an aim to transform JUDGE ME into the Korean context and further dive into the artistic development for JUDGE ME in Seoul at SPAF in the coming future.

Over five months, the team of three formed a research group and conducted

two online surveys and four focus group zoom interviews to find out how artists are being valued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be more inclusive, the surveys were designed into two versions, one targeting artists and the other non-artists. Altogether 70 responses were collected. Based on the findings, four focus group interviews were designed, in which four different groups of people including 1. non-artists; 2. artists; 3. artists working with amateurs and 4. institutions altogether 12 interviewees, each group over a 90-120 minutes session. The surveys were conducted in Korean while the interviews were in English with some interpretation assistance. After the first two focus group interviews, an internal sharing with the KAMS team to update the research progress was conducted.

Findings and Learning points

This research suggests many similarities between Norway and Korea.

Artists' Perspective

- 1) More than half of artists in both countries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survive only through art work, and that public funds are the main source of income.
- 2) They tend to be dissatisfied with salaries, working hours, and respect from society, but a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interests,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motivation, and self-realization.
- 3) Many artists have the opinion that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should deal with social topics.

Public Perspective

- 1)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creations of contemporary artists are mainly self-expressions and disconnected from society.
- 2) Nevertheless, they believe that contemporary art and artists play an important role in society and provide vision and inspiration for the future.
- 3) Their opinion is that the introductions for performing arts and exhibitions are made in abstract and ambiguous language, which is an obstacle to connecting the audience with the artwork.
- 4) Regarding the artist's income, their opinion is that it is fair for artists to make what's similar to a regular full-time employee. However they believe that

artists should make a living by selling their works.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as follows.

- 1) In Korea, artists are generally more satisfied with their work than non-artists. But in Norway, artists are less satisfied with their work than non-artists.
- 2) More than half of Norway's artists have other jobs to support their livelihood, while Korea's index is less than half of that.
- 3) When artists were asked what they find most challenging other than economic instability, Norwegian artists said it is to endlessly seek public funds and doubt whether their work is valuable to society, while Korean artists said the indifference from the society is what leaves them wanting more.
- 4) Compared to Norwegian artists, many Korean artists feel that social media is very helpful in promoting their work.

Conclusion

Conclusion

Through remote research, it was possible to learn about the Korean public's view on contemporary art and the structure of the performing arts world. And this laid a firm foundation for developing a script based on local issues and social context. In addition, this research helped identify potential participants of 'JUDGE ME'.

Challenges

Through interviews with Korean creators and producers, we were able to hear their experiences and advice on how to work with the community. In the course of this research, the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localizing the work in the concept touring format were explored, and three models were derived as follows.

- 1) Licensing concept and script
- 2) The creators staying in the country for a long time and carrying out workshops to re-create the work according to the local context
- 3) All performers of the original work moving to the destination in a traditional tour format

Next Step

If 'JUDGE ME' is localized in Korea in the future, we want to have more in-depth conversations with artists and local communities through workshops and residence programs.

PROFILE

Jingyi Wang

Jingyi Wang (b. Beijing) is a performance creator and curator based in Bergen, Norway. She has a multi-education background in advertisement, global communication and performing arts. Her works feature interdisciplinary, concept-driven and participatory performance. www.jingyiwang.org

Lynn Fu

Lynn Fu is a Shanghai and New York based independent curator and producer. Her career focuses o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production between China,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Her interest lies in exploring new possibilities of connecting people through the performing arts. www.lynnfu.org

Heejin Lee

Heejin Lee is a creative producer and co-founder of Producer Group DOT. She works with a diverse range of artists from diverse backgrounds in theater, dance and interdisciplinary arts. She acts as a bridge between Korean artists and artists from the rest of the world with a focus on international co-productions.

2022 공연예술 해외진출 기반마련(커넥션)
넥스트모빌리티 결과자료집

주 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 획	최석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 이연경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예술기반팀장 양근화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예술기반팀 주임
참여예술단체	텐저린 콜렉티브 장혜진, 김재리, 임지애 제너럴쿠스트 이해령, 임현진, 이혜미 JUDGE ME 왕징이, 푸린, 이희진
번 역	무탈통번역
디자인	프럼에이
발행인	문영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발행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57(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교육동 3, 12층 www.gokams.or.kr
문 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75

* 본 자료집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자료집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 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 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2 KAMS Connection
Next Mobility Results Report

Host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Sponsor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Organizers	Kyu Choi, Creative Director of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Emilia Y.K. Lee, Chief Manager of Performing Arts Planning team, Performing Arts Division,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Geunhwa Yang, Project Manager of Performing Arts Planning team, Performing Arts Division,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Participating Art Groups	He Jin Jang, Kim Jae Lee, Jee-Ae Lim of Tangerine Collective Hyeryung Lee, Jin Yim, Hyemi Lee of Generalkunst Jingyi Wang, Lynn Fu, Heejin Lee of JUDGE ME
Translation	Mutar Translation
Design	fromA
Publisher	Moon Young Ho, President of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Published by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12F, Hongik University Daehak-ro Campus Building 3, 57 Daehak-ro, Jongno-gu, Seoul, Rep. of Korea www.gokams.or.kr
Inquiry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at +82 2 708 2275

* This report was published with support from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s of the Arts Council Korea. The copyright of this report belongs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and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and cannot be used or sold for commercial purposes without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and Korea Arts Management. Unauthorized reproduction or piracy is prohibited by Article 7, Paragraph 5 of the Copyright Act.